



‘비룡’ 나주환 호랑이 변신... KIA 내야 보강

SK와 무상트레이드... 유격수·2루수로 통산 1423경기 출전
베테랑 경험 전천후 내야수 기대... 두산 홍상삼도 영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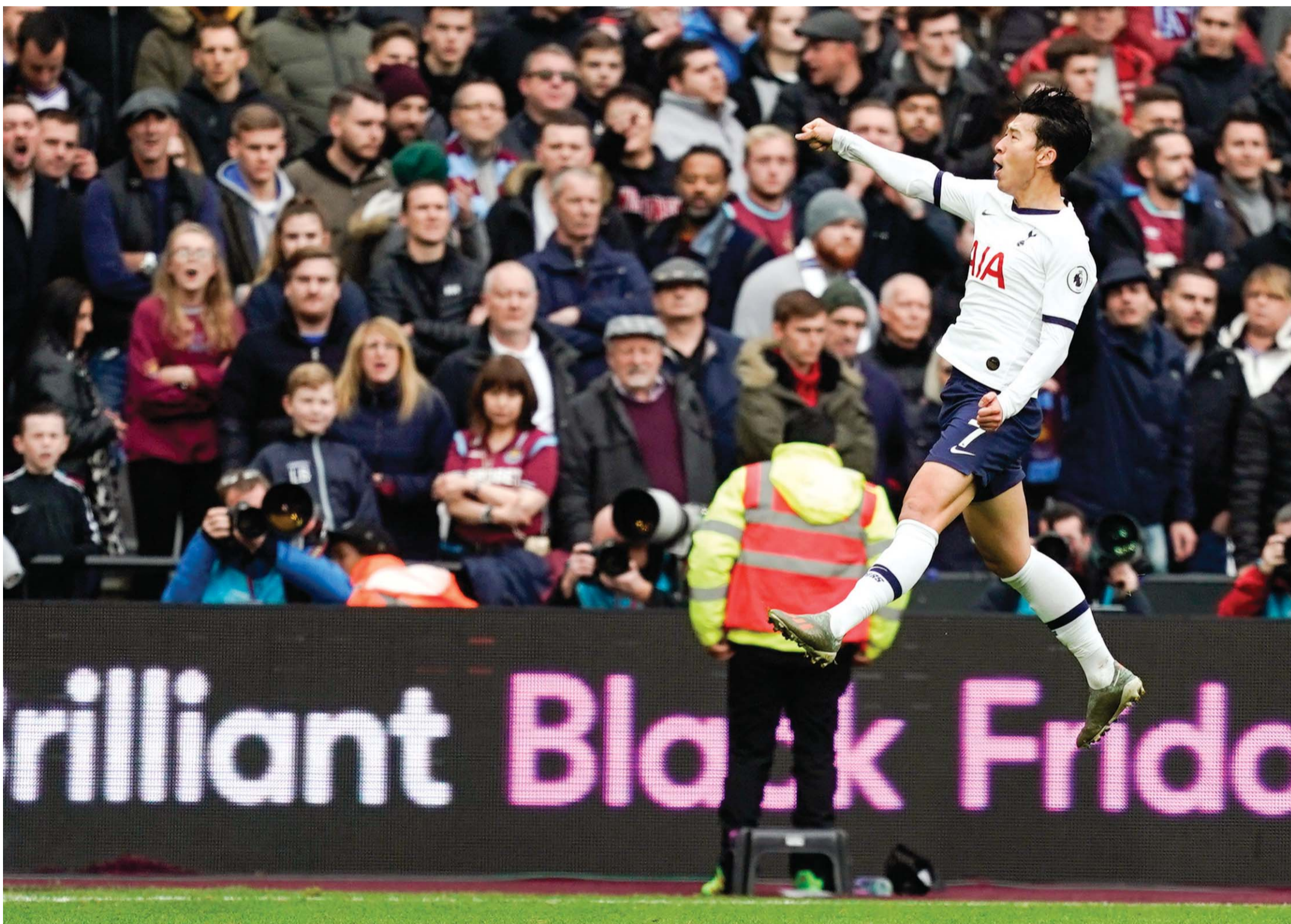
SK 와이번스의 나주환(35)이 광주에서 '제2의 서동욱'이 될 수 있을까?
KIA 타이거즈가 무상 트레이드를 통해 SK에서 내야수 나주환을 영입한다.
올 시즌이 끝난 뒤 FA 자격을 얻은 나주환은 권리를 포기하고 SK와의 재계약을 준비했다.
그러나 SK의 2020시즌 구상에 나주환의 이름이 빠져있고, 나주환은 '현역으로 뛰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구단과 입장이 엇갈렸다.
SK는 지난 23일 박정배, 배영섭, 최승준 등 방출자 14명을 발표했지만 나주환의 이름은 없었다. KIA와 트레이드가 성사되면서 방출자 명단에서 나주환을 제외한 것이다.

KIA가 나주환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제2의 서동욱'이다.
KIA는 염경엽 SK 감독이 넥센(현 키움) 지휘봉을 잡고 있던 지난 2016년에도 서동욱을 무상 트레이드로 영입한 적이 있다.
당시 넥센에서는 유망주들의 내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입지가 좁아진 선수의 앞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조건 없는 트레이드가 성사되면서, 서동욱이 친정으로 돌아왔다.
2005년 LG와의 트레이드로 KIA를 떠났던 서동욱은 2013년 다시 트레이드를 통해 넥센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2016년 무상 트레이드로 11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했다.

이번 가을 코치로 변신한 서동욱은 돌아온 친정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줬다.
올 시즌에는 1군 무대를 밟지 못했지만 이적 첫해인 2016년 124 경기에 나와 0.292의 타율과 16홈런을 기록하며 67타점을 만들어냈다. 2017년에도 124경기에 나와 0.282의 타율로 48타점을 수확하며 'V11'의 특급 조연이 됐다.
무엇보다 전천후 수비수로 내-외야를 가리지 않고 KIA의 빈틈을 메우며 '소금' 역할을 톡톡히 해줬다.
또 자신의 확실한 루틴을 가지고 그라운드 안팎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도 했다.
KIA는 야수진 세대교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올 시즌에도 '젊은 마운드'가 내부 경쟁을 통해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지만, 야수진의 격차는 여전히 현존한다.

여기에 팀의 핵심 선수인 김선빈과 안치홍이 동시에 FA 시장에 나오면서 선수단 구상에도 변수가 생겼다.
내야에 젊은 선수들이 확실하게 자리잡을 동안, 과도기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던 KIA는 나주환을 선택했다.
나주환은 올 시즌 94경기에 나와 타율 0.222, 3홈런, 20타점에 그쳤다. 올 시즌 내 입지가 많이 좁아졌지만 나주환은 2루수와 유격수로 통산 1423경기에 출전한 베테랑이다. KIA는 베테랑의 경험과 선수 생활에 대한 강한 의지에 기대를 보이고 있다.
나주환이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그라운드 안팎에서 모범을 보이며 KIA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울지 주목된다.
한편 KIA는 두산 베어스에서 방출된 투수 홍상삼의 영입도 추진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1골 1도움' 무리뉴 데뷔전 축하 선물



손흥민이 2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원정에서 첫 골을 터트린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리그 4호골·5도움
토트넘, 웨스트햄에 3-2 승리

'손세이셔널' 손흥민(27)이 조제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 사령탑 데뷔전에서 리그 4호 골에 리그 5호 도움까지 작성하는 '원맨쇼'를 펼치면서 팀의 정규리그 5경기 무승(3무2패) 탈출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원정에서 전반 36분 선제골을 터트린 뒤 전반 43분에는 루카스 모라의 추가 골에 도움을 줬다.
이번 득점으로 손흥민은 리그 4호 골이자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터트린 5골을 포함해 시즌 9호 골을 기록했다. 여기에 리그 도움을 5개로 늘렸다.
특히 손흥민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통산 7경기에서 4골 6도움을 기록하며 천적임을 증명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선제골과 모라의 추가 골, 해리 케인의 헤딩 결승 골이 이어지면서 3-2 승리를 따냈다. 이로써 토트넘은 최근 정규리그 5경기 무

승의 부진에서 벗어나 6경기 만에 귀중한 승리를 따냈다.
여기에 토트넘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3무 3패에 그치다 첫 '원정 승리'를 맞았다.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지휘봉을 잡고 처음 나선 경기에서 손흥민은 4-2-3-1 전술의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했다.
손흥민은 0-0으로 팽팽하던 전반 36분 델리 알리가 페널티아크 정면 부근에서 찰리존 패스를 잡아 골 지역 왼쪽에서 강력한 원발 슈트로 골맛을 봤다. 1-0으로 앞선 상황에서 손흥민은 전반 43분 왼쪽 측면을 돌파해 크로스를 올렸고, 반대편에서 쇠도하던 모라가 원발슈트로 방향을 바꿔 추가 골을 쏘았다. 손흥민의 리그 5호 도움이었다.
토트넘은 후반 5분 세르주 오리에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빠르고 강한 크로스를 케인이 골 지역 정면에서 헤딩으로 결승 골을 꽂아 승기를 잡았다.
웨스트햄은 후반 추가 시간 안젤로 오그본나의 득점이 터졌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리뉴 감독은 3명이나 교체했지만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게 하면서 토트넘 데뷔전부터 강한 신뢰를 숨기지 않았다. /연합뉴스

1부리그여, 광주 FC가 간다

목포서 마무리 훈련 종료... 내달 2일 K리그 시상식

K리그2 '우승팀' 광주FC가 마무리 훈련을 끝내고 2019시즌 대장정을 마쳤다.
광주가 지난 22일 목포국제축구센터 훈련장에서 진행된 자체 경기를 끝으로 마무리 훈련을 종료했다.
광주는 올 시즌 21승 10무 5패(승점 73)의 성적으로 K리그2 왕좌를 차지하며, K리그1으로 가는 직행 열차를 탔다. 지난 9일 대전원정전을 끝으로 정규시즌 36라운드 경기를 모두 끝낸 광주는 지난 12일 유망주들을 먼저 소집해 마무리 훈련을 시작했다. 그리고 18일에는 우승 주역들도 합류하면서 마무리 훈련 열기가 뜨거워졌다.
선수들은 20일에는 구단주인 이용섭 광주시장이 마련한 승격 보고회를 위해 광주를 찾아 국악 상설 공연을 관람하고 만찬을 즐겼다.
광주는 훈련 마지막날인 22일 젊은 선수들 위주로 자체 경기를 갖고, 마지막 육식 가리기를 진행

했다. 올 시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선수들은 내달 2일과 14일 다시 '광주' 이름으로 모인다.
12월 2일에는 K리그 시상식이 열린다.
우승을 지휘한 박진섭 감독(감독상)과 함께 아솔마토프(MVP), 윤평국(GK), 이오휴(DF), 최준혁·두현석(MF), 윌리안(FW) 등이 개인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펠리페도 시상식에 참가할 예정이다. 펠리페는 강화된 개인상 시상 규정 때문에 후보에서 탈락하며 '3관왕'이 무산됐지만, 득점왕(19골) 자격으로 시상식을 찾은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12월 14일에는 또 다른 '잔치'가 있다.
이날 부주장 여름과 수비수 정준연이 순천 그랜드웨딩컨벤션에서 1시간 차이를 두고 식을 올리게 되면서, 광주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한편 광주는 2020년 1월 2일 순천에서 K리그1 무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김여울 기자 wool@

‘올해의 선수’ 고진영

LPGA 어워즈... 신인상 이정은



고진영



이정은

고진영(24)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고진영은 지난 2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리츠 칼튼 골프 리조트에서 열린 2019 볼렉스 LPGA 어워즈 행사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고진영은 10월에 이미 2019시즌 올해의 선수상 수상을 확정된 바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고진영은 올해의 선수상과 함께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에게 주는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등 2개 상을 한꺼번에 받았다.
고진영은 "오늘은 아름다운 밤"이라며 "부모님과 하늘에 계산 할아버지, 캐디 데이비드 브루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선수가 되는 시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에 대해서도 "이런 특별한 상을 받아 영광"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해 신인상 수상자 고진영은 2015년 리디아고(뉴질랜드) 이후 4년 만에 신인상을 받은 바로 다음 해에 올해의 선수가 되는 사례를 재현했다.
역시 이미 올해 신인상 수상이 확정됐던 이정은(23)도 이날 신인상 트로피를 받았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으로부터 트로피를 받은 이정은은 영어로 수상 소감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이정은은 그동안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그는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영어로 말하려니 긴장된다. 부디 제 말을 잘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먼저 양해를 구했다.
이정은은 "미국 진출 처음에는 영어도 못하고 혼자 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며 "가족과 친구 등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세계 최고 선수들이 경쟁하는 투어에서 US 오픈 우승과 신인상 수상의 목표를 이뤘다. 주위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던 꿈"이라고 고마워했다. /연합뉴스